



즉시 배포용: 2024년 2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기후 영향 평가의 기술 챗터 공개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2024 시정연설
이니셔티브 추진*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목표 달성 지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이해와 대응\(Understanding and Preparing for Our Changing Climate\)](#) 연구의 기술 챗터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 주민에게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과학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주 전역의 탄력성과 대비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2024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이니셔티브를 추진합니다. 해당 연구는 여덟 개의 기술 챗터로 구성되며, 다양한 경제 부문이 기온 상승과 악천후 빈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전국을 선도하는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 CLCPA) 시행을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풍과 폭염, 홍수의 피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 기업, 지자체, 산업 모두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탄력성을 개선하며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학술 기관, 과학 단체, 지자체, 지역사회 지도자, 산업 대표, 뉴욕주 정부 기관 등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술 챗터에서는 농업, 건축, 생태계, 에너지, 인간 보건 및 안전, 사회 및 경제, 교통, 수자원 등 여덟 부문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상세한 정보와 예상되는 영향을 전달합니다. 여덟 개의 [기술 워킹그룹](#)은 부문 전문가, 뉴욕주는 물론,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인디애나, 텍사스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사회와 지역구 대표, 원주민 지역사회 구성원의 주도로 챗터를 작성합니다. 챗터는 학술지인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에 게재를 위해 제출될 것입니다.

NYSE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YSERDA는 지방, 지역, 전국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과학 기반의 연구를 진행하고 탄력성과 적응 전략을 결합한 향후 계획 수립의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뉴욕주는 계속 무배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악천후로 인한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연구의 해당 부분은 뉴욕주의 기후 변화 [예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후 변화 양상 및 이후 추세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포함해 1월 초에 공개되었습니다. **Columbia University**가 도출한 예상치는 기온, 강수, 악천후, 수위 등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와 해양, 기타 물리적 요소들이 열을 저장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쌓일 경우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개발한 첨단 컴퓨터 모델을 기초로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올해 시정연설에서 **Hochul** 주지사가 발표한 [종합 탄력성 계획](#)을 지원합니다. 해당 계획의 목적은 폭우, 폭설, 한파,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악천후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커미셔너인 **Basil Seggo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 뉴욕 전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천후 발생이 증가해 홍수, 폭염 피해가 늘어나고 주요 인프라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의 기후 영향 평가는 정보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추진하고 탄력성을 개선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투자를 진행하여 뉴욕 주민의 기후 변화 적응 및 대응을 돕습니다.”

SUNY 총장인 John B. King,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급히 우리 지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Hochul** 주지사는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로 뉴욕은 이끌고 있습니다. **SUNY**는 탄소 발자국 감소에서 친환경 미래 인력 육성, 기후 변화 및 재생 에너지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 등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의 의지를 보이며 기후 변화의 피해를 완화하고 탄력성을 개선하는 연구 및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지난 여름 체험했습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뉴욕주를 뒤덮었고, 대기 질을 악화시켜 비상 의료 상황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기후 변화의 영향과 이와 관련된 공중 보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 단체가 협력한 증거 기반 연구를 통해 상식적인 정책과 제안이 만들어져 뉴욕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Peter Harckham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영향 평가는 뉴욕 주민들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기후 탄력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후 탄력성 개선 노력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이미 발생한 기후 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일상의 영향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책을 진행해주신 주지사와 그의 팀에 감사드립니다.”

Deborah Gl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환경보존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전략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뉴욕을 더욱 지속가능하고 탄력성이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솔루션에 직접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카운티 협회(**New York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 사무총장인 **Stephen J. Acquari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기후 영향 평가 공개를 통해 기후 변화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첨단 과학 연구에 기반을 둔 이번 종합 분석은 우리 지역사회가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행 가능한 통찰과 전략을 통해 적응과 탄력성 개선을 지원하는 이번 평가는 주민과 기업, 정책 결정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더욱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Cornell University 농업 및 생명과학 대학(**CALS**)의 **Ronald P. Lynch** 학장인 **Benjamin Hoult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주민들은 실시간으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농업 및 식품 부문에서 파급 효과가 발생하며 일상 곳곳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지역사회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토지 보조금 지원 기관인 **Cornell CALS**는 전문성을 활용해 기후 변화의 영향에 뉴욕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의 번영을 위한 완화 전략 수립에 기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lab Architect 의장이자 **New York City College of Technology** 교수인 **Illya Azarof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기후 영향 평가는 우리 뉴욕주 뿐 아니라 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탄력성 역량을 갖추는데 중요하며, 미래 투자가 평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연구에서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생 에너지 설치, 건물 및 교통 시스템 전기화,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은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뉴욕 지역사회가 겪는 영향을 완화합니다. [뉴욕주 기후 영향 평가\(New York State Climate Impacts Assessment\)](#)의 세번째 내용은 뉴욕주가 받을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올해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국가 주도의 기후 계획

뉴욕주의 기후 어젠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녹색 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청정 에너지 투자의 혜택의 40%를 목표로 최소

35%가 소외된 지역사회에 향하도록 하는 질서 있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뉴욕은 **New York Cap-and-Invest program (NYCI)**을 비롯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여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2050년까지 85 퍼센트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생성 70% 등 2040년까지 무배출 전기 부문의 필수 목표에 도달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초석은 뉴욕주 전역의 64개 대규모 재생 및 송전 프로젝트에 400억 달러 이상 투자, 건물 배기 가스 감축을 위한 68억 달러 이상, 태양광 확장 33억 달러, 청정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약 30억 달러, **NY Green Bank**의 20억 달러 이상의 약정 등 전례 없는 청정 에너지 투자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타 투자를 통해 2022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17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3,000 넘게 성장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뉴욕은 또한 2035년까지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및 경형 트럭을 무배출 차량으로 제한하는 등 무배출 차량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등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Climate Smart Communities**) 400곳, 인증 기후 스마트 지역사회 130곳 이상, 청정 에너지 지역사회(**Clean Energy Communities**) 약 500곳, 뉴욕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대기 질 관리 이니셔티브 참여 지역사회 10곳 등 대기 오염에 대응하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뉴욕주 기후 행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실의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십시오.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